

글로벌 공학인재양성

공인원 이 함께 합니다.

Main News

시드니 어코드/더블린 어코드 정회원 가입 축하연 개최

ABEEK 소식

2013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워크숍 개최

중앙대학교 E3 Camp 개최

2013년도 제3차 인증사업단(ETAC) 워크숍 개최

제38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CEO School 조찬 특강

2013년도 산업체 자문운영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2014년 인증평가대상 PD초청 간담회(EAC/CAC) 개최

제4차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공인원 in 미디어

[한국대학신문]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목포대

[한국경제 잡앤조이]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조선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탐방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영길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공학분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은 공인원이 국내 공학 교육의 질 개선과 세계화를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의 인정기관 지정으로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공인원의 책임이 막중해진만큼 앞으로도 공인원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공인원의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

시드니 어코드/더블린 어코드 정회원 가입 축하연 개최



〈참석자 단체 사진〉



〈감사패를 받은 영남이공대 이호성 총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9월 6일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시드니 어코드(Sydney Accord)와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 정회원 가입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시드니 어코드와 더블린 어코드는 참가 회원국의 공학기술교육의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로 시드니 어코드는 3년 이상의 교육기간으로서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테크놀러지스트(Engineering Technologist)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블린 어코드는 2년 이상의 교육기간으로서 엔지니어링 테크니션(Engineering Technician)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인원은 지난 6월 시드니 어코드와 더블린 어코드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공인원 김영길 원장, 김성조 수석부원장과 13개 전문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정회원 가입에 기여한 이호성 영남이공대 총장 등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김영길 공인원 원장은 “이번 두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공학기술교육이 Global Standards에 부합됨은 물론 졸업생의 수준도 국제적으로 상호 동등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우수한 글로벌 공학 전문 인재 양성과 졸업생의 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많은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공인원이 시드니/더블린 어코드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 전문대학 공학교육과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3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워크숍 개최



8월 27일(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워크숍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인원이 2013년 6월 시드니 어코드 및 더블린 어코드의 정회원이 됨에 따라 향후 워싱턴/시드니/더블린 어코드 정회원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평가위원 행동지침, 일반적인 평가 사이클, 관련 규정, 평가기관 및 각 어코드에서 제공하는 Pre-visit 문서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공인원은 미국 공학인증기구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4대(워싱턴/서울/시드니/더블린 어코드)공학교육인증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앙대학교 E3 Camp 개최



중앙대학교에서 요청한 E3 Camp(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가 “교수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E3 Camp” 라는 타이틀 아래 8월 28일(수)에 중앙대학교 102관 University Club에서 개최되었다.

E3 Camp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교육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E3 Camp는 일방적 강연으로 진행되는 기존 워크숍과의 차별화를 꾀하여 평가지식 관련 주제 강연, 그룹별 심층적인 토의 및 실습 그리고 실습 결과의 발표 등을 통하여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중앙대학교 요청 E3 Camp에는 이재용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비롯하여 교수(PD 교수 포함)과 직원 2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Camp에서 다룬 주제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체계 모형, Rubrics의 개념과 개발 방법이었다. 조별 토의 및 실습시간에는 참석자 전원이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실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3년도 제3차 인증사업단(ETAC) 워크숍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8월 31일(토)부터 9월 1일(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베스트웨스턴 인천 호텔에서 2013년도 제3차 인증사업단(ETAC)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조 수석부원장과 이호성 부원장, 조선형 ETAC위원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학기술교육인증 확산 방안과 ETAC 관련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제38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제38회 공학교육인증포럼이 국회 강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도연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공인원 김영길 원장과 김성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금)에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학교육인증포럼은 공학교육인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의 발전 및 학교교육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고 우수 운영 사례의 공유를 통해 인증제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강은희 국회의원과 함께 “창조경제시대의 공학교육” 정책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창조경제시대에 공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기초 강연과 함께, ‘공학교육인증제도 : 현재와 미래’, ‘공학교육의 미래설계’, ‘교육어코드와 공학교육의 국제등가성’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길 원장의 인사말〉



〈강은희 의원의 기초강연〉

중소기업중앙회 CEO School 조찬 특강



9월 26일(목)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CEO School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은 21세기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영길 원장은 중소기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에서 “21세기를 Competition, Change, Customer, 즉 '3C' 시대라고 한다. 우리가 앞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무대는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이다. 교육의 고객인(Customer)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Competition)할 수 있도록 21세기 글로벌 교육을 위한 변화(Change)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의 과정이 변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3년도 산업체 자문운영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10월 11일(금)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공인원 김성조 수석부원장, 김지인 사무처장, 박광수 사무국장과 광운대학교 홍의석 교수,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곤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 운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 인증평가 현황, IEA 및 서울어코드 총회, 공학교육인증제도 성과확산 등 2013년도 공인원에서 실시한 주요 업무가 소개되었다.

또한 올 11월에 예정된 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 통합 워크숍을 교수와 대학생 그리고 산업체가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수석부원장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산업체자문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2014년 인증평가대상 PD초청 간담회(EAC/CAC) 개최

2013년 10월 22일(화), 10월 25일(금)에 이화여대 교육문화관과 충남대 정심국제문화회관에서 2014년 인증평가대상 PD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도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원활한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민경원 인증사업단장과 부준홍 EAC위원장, 2014년 인증평가대상 프로그램 PD교수와 교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2014년 인증평가 주요사항 및 교육기관 준비사항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그리고 인증평가 주요 지적사항 등이 설명되었다.



제4차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제4차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8월 22일(목) 부산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정현영 회장과 모다정보통신(주) 이종희 회장(한국공학한림원 회원), 공인원 김성조 수석부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평가자 방문교육 운영(안), 평가위원 추천 의무화 등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어 우수 평가위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는 교육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공학커뮤니티로 2012년 9월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5차 회의는 11월 22일 달개비(광화문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목포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학의 공학교육 경쟁력은 대외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2011년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톱 50 공과대학'에 한국은 포스텍과 KAIST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비용이 1인당 연간 6000만원에 이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공학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이 개발되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전국 4년제 공과대학 60곳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10개 전문대학에는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다. 본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를 공동 기획했다. 이를 통해 우수 사례가 될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취재, 이를 8회에 걸쳐 보도한다.



(한국대학신문 기사 인용)

[한국경제 캠퍼스 잡앤조이]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조선대

캠퍼스 잡앤조이는 지난 3월 숨은 스펙찾기라는 제목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이수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국의 공과대학에서 속속 공학교육 인증에 참여하면서 학내에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세우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공학교육혁신센터이다. 캠퍼스 잡앤조이는 전국의 우수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직접 찾아 공학 인재 양성 현장을 둘러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건국대에 이어 조선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찾았다.

(한국경제 캠퍼스 잡앤조이 기사 인용)



서강대학교 한윤정

- 2012년 컴퓨터공학과 졸업
- LG전자 MC사업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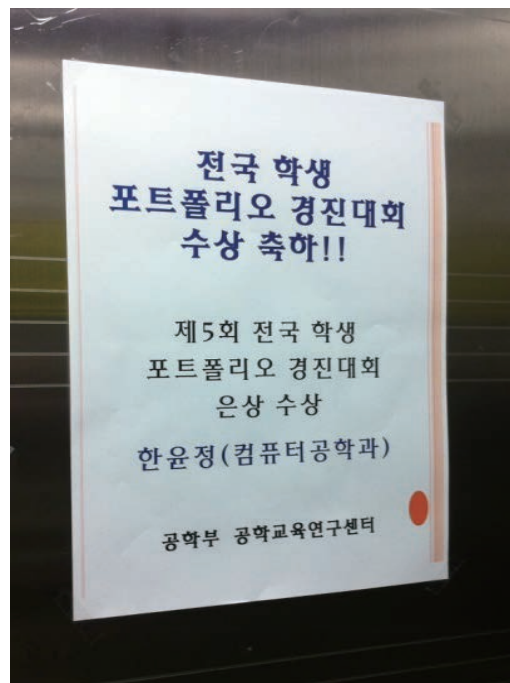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후배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와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마다 포트폴리오란 타인에게 나 자신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과 같은 것이라고 대답해주고는 합니다.

학생포트폴리오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성취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공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 등의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은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학생의 본업인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취직을 준비하는 활동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교과과정 이수와 누구나 준비하는 영어 성적만으로는 저를 다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가진 성적과 점수라는 수치로는 저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활동해온 여러 분야의 동아리, 교환 학생 등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진과 사실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기록하다 보니, 바쁜 4학년 생활에 잠시 잊고 지냈던 많은 경험들이 떠올랐고, 그 경험들을 통해 얻은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4년 간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밴드활동을 하면서 무대에 서 본 경험, 지적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 창업동아리에서 직접 상품도 계획하고 판매도 해 본 경험, 전공에 관한 전국 대회의 경험 등 이 모든 경험들이 모두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다니, 포트폴리오 또한 이제 저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내가 4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정리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인지, 먼 미래의 구체적 계획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포트폴리오에 기록해두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수상경력이 저의 스펙으로 쌓이고, 면접을 볼 때에도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고 LG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는 저에게 학생 포트폴리오의 경험은 제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불필요해 보이기만 했던 경험까지도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신입사원인 저에게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에게 듣는 면접 Tip

바른말과 존대어

면접에서 준비한 멘트와 질문에 대해 정성 들여 겸손한 태로도 응대했다 해도 적절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존댓말을 잘못 쓴다면 응답의 내용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예로 “지금 질문자가 말한 것인데” 라고 하는 대신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정정해야 한다.

약어나 은어들이 대화 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미리 바른말과 존대어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발랄한 태도

침착하면서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우물거리지 말고 패기만만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좋다.

차분하게 준비한대로 자신을 100%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음성은 또렷하게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버무리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못 알아들은 질문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좋다.

버릇은 제 2의 천성

면접 중에 은연 중에 입에 손을 댄다든지, 응답하면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독특한 버릇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양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놓고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평소 자신에게 무슨 버릇이 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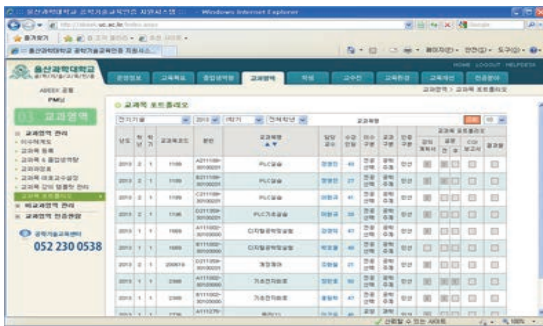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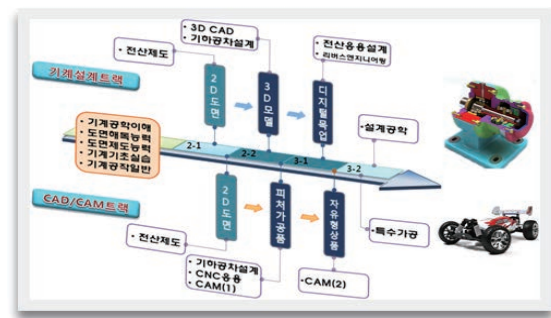
공학교육혁신센터 소개

설립목적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의 품질 보장과 교육과정 COI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 및 양식의 개발과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학기술교육인증 지원시스템〉



〈NCS를 기반으로 한 제작중심의 교육과정개발 사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기술교육센터 (용접기술, 기계가공금형기술, 자동화로봇기술, 반도체공정)〉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인터뷰



〈 손성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

Q.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A. 공학기술교육의 목표에 대한 학위과정 구성원들의 뚜렷한 인식과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우수 기술인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학교의 바람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공학기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의 관심이 학생들의 공학기술역량 성장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조속한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의 행 재정적 지원은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Q.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공학교육인증제가 공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확립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여 학위과정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체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공학기술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학위과정에 일임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육내용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입이후 NCS교육과정개발, 제작중심의 교육과정 개선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교육센터의 구축 등이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과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A. 공학기술교육인증제 학위과정 이수 학생의 양적확대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 공학기술교육인증제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공학계열의 특성상 병역 등의 이유로 2013년 현재 전체 공학인증 대상학생 대비 이수자의 비율이 약 12%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부터는 우리 대학교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가 정착기에 접어든 만큼 공학인증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양적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학인증 이수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달라진 변화 혹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Q-1)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교수들의 교육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의 변화는 어떠한가?

A. 업의 내용과 진행에 있어 개인적인 의견과 재량에 따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진행, 강의내용, 학습성과의 평가 등이 동일 교과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졸업생 역량을 기준으로 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CQI가 교과목 운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Q-2)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수들이 느끼는 부담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A. 모든 교육 행위에 대한 문서화 및 공학인증 대상자의 이수 유지가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문서화는 전산시스템 및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공학인증 대상 학생이 공학인증 교육과정의 중도포기 방지는 공학인증 교육과정의 이수가 주는 현실적 장점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Q-3)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대학본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A. 공학교육인증제가 아직은 취업을 제고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공학교육 학위과정의 운영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공학기술교육의 과정과 개선을 체계화하여 정착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Q-4)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학생/졸업생의 반응은 어떠한가?

A. 초기 공학기술교육인증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귀찮고 큰 장점이 없으며 MSC교과목 필수 이수에 따른 학점의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에서 공학기술교육인증의 이수에 따른 이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공학기술교육인증제 학위과정의 최종 평가라 할 수 있는 종합설계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캡틴필립스

바다 한가운데,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소말리아 인근 해상,
리처드 필립스 선장이 이끄는 화물선 앨라배마 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필립스 선장은 순간의 기지로 해적들의 1차 공격을 막는데 성공하지만 해적들은 곧 앨라배마 호를 점령한다.
선원들을 대피시킨 채 홀로 해적들과 대치하는 필립스 선장. 숨막히는 경계와 팽팽한 심리전 속
필립스 선장은 19인 선원들을 대신하여 홀로 해적들의 인질이 되는데…!

● 2013년10월 24일 개봉

〈출처 : 네이버〉



추천
뮤지컬

메디컬 루나틱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매력적인 굿닥터가 반겨주는 곳.

세상에 하나뿐인, 약을 처방 하지 않는 병원이 있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 이제 대놓고 엿보기 시작한다. 굿닥터와 함께 생활 하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아니 나 환자들 나제비, 고독해, 정상인...
이름도 희한한 환자들의 '역할극' 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이 공개되고, 그 환자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루나틱 환자들!!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 기간 : 2013년12월 31일까지 동송동 유니플렉스 3관

〈출처: 공연의 모든 것-플레이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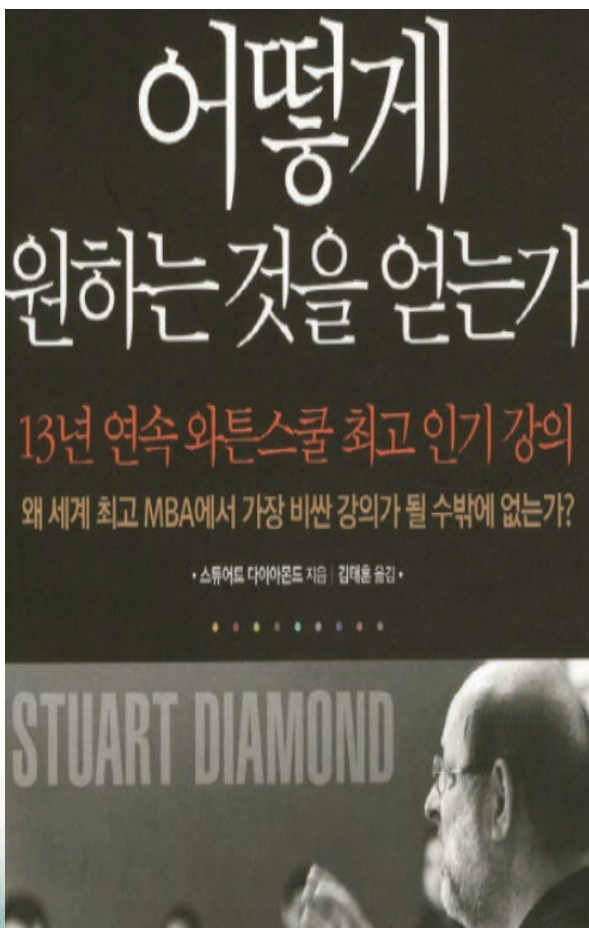


이 달의 도서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 1~3’

지금, 당신은 미래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며 세계의 중심이 된 중국의 급부상
 수천 년 국경을 맞댄 우리는 친구인가, 적인가

작가는 『정글만리』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의 중심이 되며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역동적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들과 싼 목숨으로 취급받는 농민공들의 모습 등 경제개발의 어두운 이면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과 얽히고설킨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서구인의 시각으로도 한국인의 시각으로도 쉽사리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배경이 소설 속 화자들의 입을 빌려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면서, 우리 안의 이중적 시선과 편견, 복잡하게 뒤섞인 한중일의 근현대사로 형성된 민족감정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21세기 한국과 한반도 주변의 경제적 정치적 흐름을 따라가며 진실과 정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 비전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와튼 스쿨에서 가장 비싼 강의,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
 문제해결법으로 마음을 움직이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로 평가받은 스투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강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입학 시 주어지는 포인트를 걸고 수업을 경매하는 와튼의 독특한 시스템 안에서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의 명예를 차지한 전설의 명강의다. 이 강의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방법론들을 소개한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기존에 소개되었던 설득이나 말하기, 협상 관련 전문서 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그 강의를 고스란히 옮긴 이른바 '책으로 읽는 강의'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알려주고, 이를 실제로 활용한 학생들의 예로 입증하는 형식을 취한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책에서 자신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이나 학생들의 실명을 사용하여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이아몬드 교수에 따르면, 진정한 협상이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헤아리고 기분을 맞춰가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표준이나 프레임링을 활용하는 것,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는 것 등은 이것이 제대로 행해졌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하위 전략들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책정보〉



1화 복학생 한공학, 아람이에게 꽃하다!



Coming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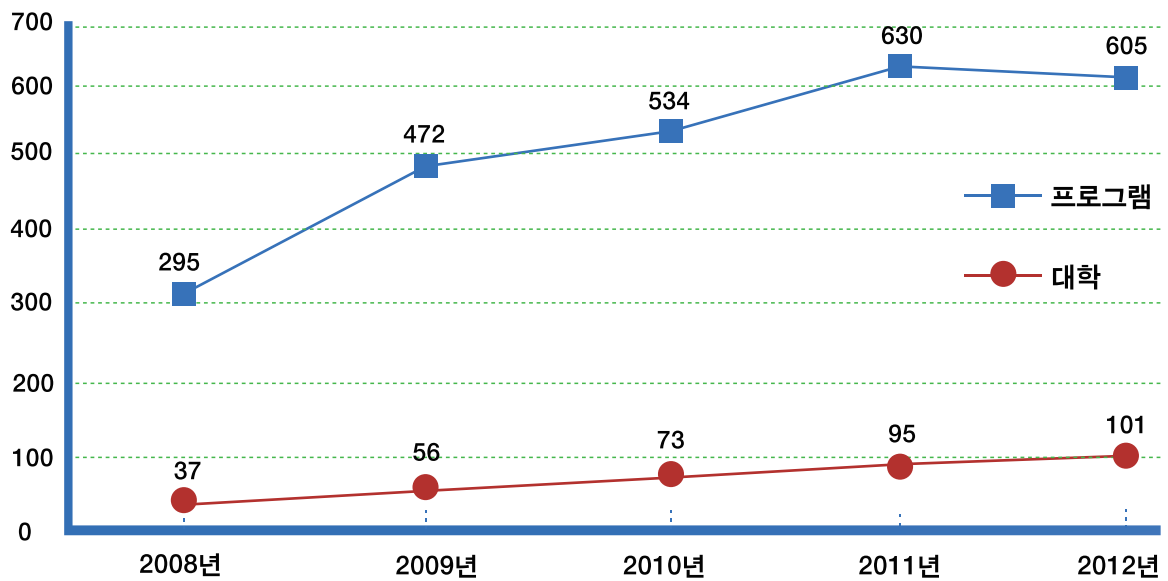
Monthly Planner

11 November 2013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1 금						1	2
2 토							
3 일	3	4	5	6 2013년도 사무처 동계 워크숍	7 2013년도 공학교육학술대회	8	9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10 일	10	11	12	13	14	15	16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7 일	17	18	19	20 공학교육인증 산학 심포지움	21	22	23 대학연도조율위원회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일	24	25	26	27	28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29 공학교육인증 우대기업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 설명회	30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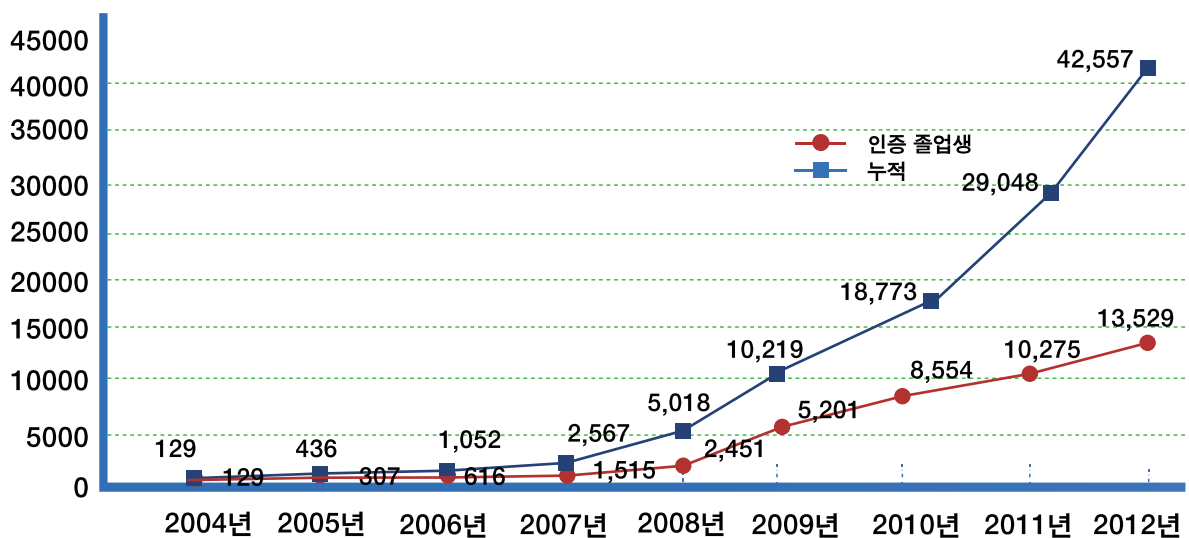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12 December 2013
1	2	3	4	5	6 제39회 공학교육인증프럼	7 인증평의회	1 일
8 인증평의회	9	10	11	12	13	14	2 월
15	16	17	18	19 제8회 E3 Camp	20 • 29차 이사회	21	3 화
22	23	24	25	26	27	28	4 수
29	30	31					5 목
							6 금
							7 토
							8 일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15 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21 토
							22 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일
							30 월
							31 화

▲ 공학교육인증 현황

● 인증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 (2013년 1월 기준)



● 인증 졸업생 현황 (2013년 1월 기준)



공학교육인증 혜택

국내혜택

개시연도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비 고
2005년	AhnLab	서류전형 우대	*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재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7년	LG-에릭슨	10% 가산점 부여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2009년	KT	서류전형 우대	
	SK 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010년	벤처기업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온세텔레콤	서류전형 우대(이력서 표기)	
	서울9호선 운영(지하철 9호선)	서류전형 우대	
	인쿠루트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서울반도체 / 서울옵토디바이스	서류전형 우대	
	드림위즈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몬티스타텔레콤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인성정보 및 5개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SK텔레콤	서류전형 우대	
	가온미디어(주)	서류전형 우대	
	(주)윈스테크넷	서류전형 우대	
	삼성SNS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2011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체 평가위원 추천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OCI	인증이수 여부 이력서 표기	
	중소기업중앙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2년	SK C&C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주성엔지니어링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휴맥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정보통신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다산네트웍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핸디소프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퓨처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옴니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바이오스마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전문과정 지원자 중 공학인증수료자 우대	
2013년	나모인터랙티브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IT여성기업인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LG전자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SK하이닉스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현대제철	입사지원서 자격증 표시란 공학교육인증이수여부 체크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캐리어	서류전형 우대	
	오텍	서류전형 우대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현대모비스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재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

***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
 현대정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무주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태백풍력발전(주)
 현대자원개발
 미포엔지니어링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셀베이스오일
 현대중공업스푸츠
 힘스
 코마스
 호텔현대
 현대아반시스
 신려관광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주)
 현대코스모

*** 인성정보 계열사 :**
 인성디지털
 엔와이티지
 벤치비
 엠케이헬스

*** STX그룹 :**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에너지
 STX건설
 STX마린서비스
 STX솔라
 STX대련
 STX OSV

*** 동국제강 그룹 :**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DK유아이엘
 DK유엔씨

국제혜택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국가별 로고	국가명	국제적 혜택
	호주 (EA: Engineers Australia)	-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수준으로 EA의 정회원, 기술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인기술사 혹은 호주기술사 등록(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Register)에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 EA의 정회원 및 기술사 등록 관련 혜택과 더불어 기술이민 시, 서류 제출 면제
	캐나다 (EC: Engineers Canada)	- Licensing body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캐나다 인증기구의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장 - 학력요건 평가 시 시험 면제 ※ 단, 캐나다 자격증 취득 시 아래요건을 충족 1) 캐나다에서의 1년을 포함해 3~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사 시험(professional practice)에서 법과 윤리 과목을 통과해야 함 3) 영어 능통(퀘벡은 불어, New Brunswick은 불어 혹은 영어)
	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	- WA 회원기구의 인증결정을 존중하고, 아일랜드의 공인기술(Chartered Engineer) 자격을 위한 교육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 뉴질랜드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 IPENZ의 기술사가(Professional Membership of IPENZ)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함
	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	- 공인기술사 (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음
	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기술사 등록 혹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각각의 주에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시,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의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주 위원회(State Board)는 ABET의 인증졸업생 혹은 교육요건과 현장경험이 인정할만한 개인은 자격증 발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일부 주 위원회에서는 교육자격을 제3자에게 평가 받도록 하기도 하나, 미국 내 대부분의 주위원회에서 동등성을 인정함
	홍콩 (HKIE: The HongKong Institution of Engineer)	- HKIE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 (Graduate/ Corporate Member of the HKIE) 갖추고 있는 교육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함
	남아프리카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 기술사 후보(Candidate Engineers)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함 (한국 (ABEEK) 은 2007년부터 인정)
	일본 (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석·박사 과정을 받기에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추천서를 JABEE 명의로 발급 -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JABEE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
	싱가포르 (IES: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 싱가포르 기술사회에서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싱가포르 내에서 PE(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
	대만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터키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urkey)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말레이시아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Malaysia)	-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러시아 (AEER: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Russi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